

# 兩班傳의 諷刺的 敘述構造

金 炯 珉 \*

## 目 次

|                      |                         |
|----------------------|-------------------------|
| I. 序 論               | ③ 作品外的 敘述內容             |
| II. 本 論              | 나) 「兩班傳」의 諷刺的 敘述構造      |
| 가) 兩班觀에 결부된 敘述內容의 分析 | ① 諷刺의 개념                |
| ① 兩班을 바라보는 4개의 시각    | ② 「兩班傳」에서의 諷刺的 敘述構造의 특징 |
| ② 作品內的 敘述內容          | III. 結 論                |
| a. 話者의 敘述內容          | <참고문헌>                  |
| b. 作中人物의 敘述內容        |                         |

## I. 序 論

本考는 「兩班傳」의 諷刺的 敘述構造를 밝히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拙稿 『「兩班傳」의 話者 分析 研究(于海 李炳銑博士 華甲記念論叢, 1978.8.31)』에 이어지는 글이다. 그곳에서 본인은 「兩班傳」이 兩班에 대한 일정한 觀點, 즉 兩班觀에 敘述의 토대를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話者가 이 兩班觀을 드러내는 方式과 그 內容을 分析해 봄으로써 話者 分析을 해 보았다.

그에 의하면, 兩班觀은 作品內的인 것과 作品外的인 것이 있었는데 그들 각각을 먼저 敘述主體로, 그 主體를 다시 敘述方式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었다. 敘述主義로 볼 때, 作品內的인 것으로는 話者와 作中人物이 설정될 수 있었고, 作中外的인 것으로는 作家自身이 설정되었다. 이것은 다시 敘述方式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논의는 話者 分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作品內的인 것중 話者의 경우로만 살폈다. 話者의 敘述方式은 story內的 敘述과 story外的 敘述로 나눌 수 있었던 바, 그

\* 사직고 교사

내용을 검토해 보니, 다같이 “兩班은 모름지기 그 신분 유지에 철저해야 한다”는 양반관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논의는 話者 分析으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作品內的인 것 중 作中人物을 主體로 한 것과 作品外的인 것에까지는 논의가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本考에서는 우선 「兩班傳」에서 兩班觀을 드러내는 방식에 어떤 것이 가능할지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그를 토대로 兩班觀과 결부된 敘述內容을 살피되, 이미 논의된 話者の 敘述內容을 제외한 作中人物의 敘述內容을 살피고, 다음으로 作品外的인 敘述內容을 살피되 「兩班傳」의 諷刺的 敘述構造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 II. 本 論

### 가) 兩班觀에 결부된 敘述內容의 分析

#### ① 兩班(士)를 바라보는 4개의 시각

「兩班傳」은 兩班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그것은 兩班에 대한 일정한 관점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兩班傳」을 연구함에 있어 兩班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본다 함은 이러한 관점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다.

兩班에 대한 시각은 作品內的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作品外的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作品內的으로 볼 때 시각을 드러내는 일차적 주체는 話者이다. 그러나 話者뿐 아니라 作中人物도 시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sup>1)</sup> 作品外的으로 그 주체는 作家 自身이 될 것이다. 作家는 作品

1) 作中人物 自身이 話者인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作品內的으로 존재하는 시각은 作中人物=話者の 시각 하나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兩班傳」의 경우 話者は 劇化되지 않은 話者(undramatized narrator)로서 작중 인물은 話者の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지금의 경우는 이에 의거하는 것이다. 劇化되지 않은 話者は Wayne Booth참조

Wayne.C. Booth, 「The Rhetoric of Fic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3 pp. 151~153

의 序처럼 作品과 직접적으로 관련시켜 시각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며, 作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이고 비교적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시각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作品內的으로 존재하는 시각은 話者나 作中人物의 兩班에 대한 견해로 표명될 것이며, 作品外的으로 존재하는 시각은 作家의 창작의도내의 양반관이나 창작의도와는 관계 없는 작가 자신의 양반관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럼 먼저 作品內的인 시각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이것은 이미 拙稿에서 논의되었던 바, 자세한 논의는 그곳으로 미루고 그 대략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作品內的인 시각은 그 주체가 話者인 경우와 作中人物인 경우가 있는데, 話者の 경우 그 서술방식은 story外的 敘述과 story內的 敘述로 나눌 수 있다. story內的 敘述로 「兩班傳」의 맨 앞에 있는 “兩班者 士族之尊稱也”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 시간이나 장소, 인물이 개재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 진술로, 作品內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story와 전혀 관련을 맺지 않는다. story內的 敘述이란 “旌善之郡 有一兩班 賢而好讀書”로 부터 시작되는 진술인데, 敘述主體는 story外的 敘述의 主體와 同一하지만 그 방식은 구체적 공간에 존재하는 구체적 인물이 하는 어떤 현실적 행동을 표현하는 것으로, 차이가 난다. story內的 敘述은 作品內에 발생하는 모든 시간의 전개과정으로 나타난다. 主體를 바꾸어 作中人物의 경우로 보면 그 예로 “觀察使 巡行郡邑 閱羅羅 大怒曰 何物兩班 乃乏軍興 命囚其兩班”중 “何物兩班 乃乏軍興”과 같은 것으로 話者の 敘述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作中人物의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話者라는 主體가 서술하는 방식은 story內的인 것과 story外的인 것이 있겠지만 作中人物의 서술은 그 자체가 이미 일정한 時·空間에 터를 둔 story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므로 오직 story內的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作品內的인 시각은 ① 話者が 하는 story外的 敘述, ② 話者が 하는 story內的 敘述, ③ 作中人物이 하는(story內的) 敘述의 3방식이 존재하게 된다. 이상이 拙稿에서 이미 논의된 作品內的으로 존재하는 시각이었다.

그럼 이제부터 作品外的으로 존재하는 시각을 살펴 보자. 作品外的 시각의 주체는 話者나 作中人物을 벗어나 實際作家와 관련된다. 그러므

로 주체는 사실상 하나의 존재로 단일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가 진술하는 방법이 作品과 관련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兩班에 대해 진술하되 「양반전」이라는 작품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창작 동기라든가 作品에 대한 自評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作品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兩班傳」과 직접으로 관련된 燕岩의 兩班觀, 그것은 「兩班傳」이 실려 있는 「放瑠閣外傳」의 〈自序〉에 나온다.

「士廻天爵 士心爲志 其志如何 弗謀勢利 達不離士 窮不失士 不飭名節 徒貨門地 酷 嚙世德 商賈何異 於是述兩班」<sup>2)</sup>

이 글을 보면, 「士廻天爵」부터 「窮不失士」까지 士에 대한 당위적 측면을 논의하며, 「不飭名節」부터 「商賈何異」까지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는 듯 하다가 「於是述兩班」에서는 「兩班傳」을 짓게 된 창작 동기를 밝히는 식으로 말을 맺는다. 결국 이 글은 「兩班傳」을 짓게 된 創作動機가 진술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士廻天爵」부터 「窮不失士」까지는 그와 관련하여 士(양반)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實際作家는 이렇듯 作品과 직접적 관련을 맺지 않고도 兩班에 대한 시각을 드러낼 수 있다. 다음 글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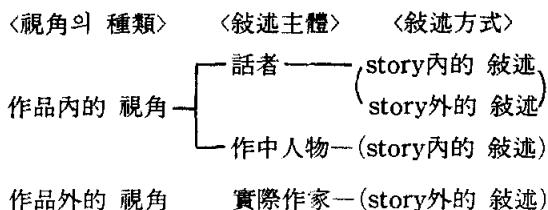
「本朝立國既久 士大夫專尙門閥 清宦惟翰林與吏曹佐郎 爲尤重……古有戒僕益馬豆 晒穀自揮雀 而遂被瑣屑之謗 終身枳清選者 夫益馬揮雀 何與於賢不肖? 而不幾傷於太薄乎!」<sup>3)</sup>

이 글은 朴氏本 「燕岩集」권3, 「孔雀館文稿」에 나온다. 양반이 말에게 콩을 더 먹이게 하고 손수 명석에 앉아 있는 새를 쫓아버렸다하여 清選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대해 自身の 견해를 밝힌다. 그러므로 이 글도 兩班에 대한 어떤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는데 「本朝立國既

2) 燕岩集, 권8 別集 放瑠閣外傳 自序

3) 燕岩集, 권3 「孔雀館文稿」 「王考手書翰林薦記」

久」로부터 「爲尤重」까지는 작가의 일반적 견해가 진술된 것이고, 「古惟戒僕益馬豆」부터 「終身積清選者」까지는 작가가 보았거나 들은 사건을 서술한 것이고, 「夫益馬揮雀」부터 「而不幾傷於太薄乎」까지는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작가의 양반관이 「兩班傳」이란 作品과는 비교적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진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作品外的인 敘述도 作品과 직접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둘로 나뉜다. 그런데 이런 敘述方法上的 차이는 근본적으로 作品 바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story外的 敘述일 수밖에 없다. 즉 作品外的 시각은 실제 작가를 주체로 한 story외적 敘述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논의된 시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여 「兩班傳」에 관련된 兩班觀은 4가지가 존재하게 된다. 그림 그 관점에 따라 양반관이 어떤 내용으로 나타나는지 살펴 보겠다.

## ② 作品外的 敘述內容

### a. 話者の 敘述內容

원칙적으로 말하면 作品內的 敘述內容은 이 話者の 敘述內容부터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그 내용은 이미 序論에서 간략하게 논의되었던 바대로 그 자세한 내용은 既往에 발표된 拙稿에 미루고 지금은 作中人物의 경우로만 살펴겠다.

### b. 作中人物의 敘述內容

李家源님에 의하면 「兩班傳」의 作中人物은 旌善兩班, 兩班의 아내, 觀察使, 郡守, 동네의 富人외에도 士族, 農民, 공장이, 장사치, 公兄座首, 別監, 通人, 戶長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다.<sup>4)</sup> 그러나 士族 이

4)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80, pp. 300~301

하 戶長까지는 군수의 立卷過程에서 사실상 배경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서 인물로 거론할 가치가 없는 배경적 존재이다. 그들을 빼 나머지 인물들을 편의상 觀察使, 兩班의 아내, 富人, 郡首의 順으로 살펴 보자

觀察使는 양반을 하옥시켜 그를 궁지로 몰아 넣는 인물인데 그가 등장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

「...觀察使 巡行郡邑 閱羅羅 大怒曰 何物兩班 乃乏軍興 命囚其兩班」(방정필자)

이렇게 하여 관찰사는 양반을 하옥하도록 명령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일단 양반에 대한 발언을 한다. 「何物兩班」이라는 것이다. ‘어느 놈의 양반’이라는 말 속에는 양반이라고 하는 것을 대수롭게 보지 않는 시각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sup>5)</sup>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兩班에 대한 시각이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그것은 관찰사가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곧 알 수 있다. 관찰사라 하면 이는 從二品の 堂上官으로서 品階(地位) 및 官階(職業)가 있는 관료양반이다.<sup>6)</sup> 이는 그 때 당시 지배 계급의 골간을 이루고 있으면서 양반중에서도 비교적 세력이 유력했던 계층이다. 그런데 旌善의 양반은 그냥 「有一兩班」으로서의 양반일 뿐이다. 그는 새로 부임한 군수로부터 일정한 예를 받기는 하지만 경제력은 거의 없이 관청에 빚만 지고 사는 존재이다. 군수라는 관료 양반으로부터 일정한 예를 받고 있는 점으로 보아 旌善兩班은 그 선조대에 군수 이상의 높은 벼슬 자리에 있었으며 경제력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그벼슬을 이어가지 못하여 경제력도 잃

5) 이것을 ‘몰락 양반에 대한 규탄’으로 보는 경우도 이 관점에 의거한 것이다. 金英東 「燕岩小說에 나타난 諷刺性」 (車溶柱編 「燕岩研究」 대구 계명대학 출판부 1984) p. 315

6) 벼슬자리(官職位)를 중심으로 양반을 구분하면, 品階(地位) 및 官階(職業) 有無의 組合에 의해 4유형으로 나뉜다. 즉 有品有官者(文官 및 從九品 이상의 武官) 有品有官者(散職, 實職의 소유자), 無品有官者(吏胥, 軍校), 無品無官者(生員, 進士等)이다.

金泳謀, 朝鮮支配層研究 서울 一潮閣 1982. pp. 27~28

고 선조대의 양반 그들에 파묻혀 그에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sup>7)</sup> 이런 상황에서 관료직에 있는 양반으로서의 관찰사가 이런 兩班을 제대로 보았을 리가 없다. 그리하여 그는 旌善이라는 낙후 지역<sup>8)</sup>에 사는 한 몰락 양반에 대한 통박을 한 것이지, 양반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양반에 대한 시각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거론할 성질이 못 된다고 하겠다.

그 다음 양반의 처가 양반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는 곳은 다음 부분이다.

「其妻罵曰 生乎子好讀書 無益縣官羅 咄 兩班 兩班不直一錢」(방점필자)

이 말은 양반에 대한 맹렬한 통박이다. 하지만 이것도 양반에 대한 일반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보기 곤란하다. 그 처가 양반을 공격하는 이유는 책 읽기만 좋아했지 현실 생활에는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함때문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반 그 자체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양반입네하고 허세를 떠는 몰락 양반인 자기 남편에 대한 인간적 질책인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자기 남편이 관직에 있어 양반이라는 것때문에 경제력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며, 앞의 관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관된 관점을 제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리하여 이것도 양반에 대한 시각을 다름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

다음은 富人이 양반을 바라보는 시각인데, 이것은 「兩班雖貧常尊榮」이라 하여 양반을 대단히 높게 보고 그를 돈으로 살 생각을 하는 소박

7) 벼슬자리와의 관계와 土地, 奴婢의 소유 관계에 의해 양반을 구분하면, 3계층으로 나뉘는데, 제1類 兩班은 有業이며 官僚인 양반으로 「양반전」의 관찰사가 해당되며, 제2類 兩班은 無業이며 官僚인 양반으로 국가의 벼슬과 先祖들의 벼슬 그들에서 생활근거를 찾는 부류이며, 제3類 兩班은 有業이며 非官僚인 양반으로 中小地主와 兩班 農民이 이에 속한다. 이중 2류 양반은 벼슬길이 떨어져 여러대를 거치다보면 거의 常民의 위치로까지 전락하기도 했는데 「양반전」의 旌善兩班은 이런 부류에 속한다. ibid p. 26 참조

8) 旌善의 낙후성에 대해서는 이 가원님의 논의 참조 註4) p. 350

한 견해로부터 시작하여 「將使我爲盜耶」라 하는 견해로 끝맺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富人 自身の 양반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이 드러난다. 왜냐하면 富人이 양반에 대해 가진 생각이란 사실은 군수가 1·2차의 立卷過程에 의해 의도했던 대로 내려진 결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제시하는 양반관은 그의 문맥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군수의 문맥으로 살피야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양반에 대한 시각을 거론함에는 富人의 견해도 제외되고 마지막으로 군수의 양반관이 남게 된다. 사실 이 군수는 話者의 story內的 敘述에서 살펴본 것처럼, 作品의 사건 구조의 흐름을 지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존재인 만큼 작품의 핵심을 이룬다고도 볼 수 있다. 그의 양반관은 1·2차 立卷過程에서 밝혀진다. 양반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면 1차 立卷過程에서 제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絕棄鄙事 希古尚志 五更常起 點硫燃脂 目視鼻端  
會踵支尻 東來博議 誦如冰瓢 忍饑耐寒 口不說貧  
叩齒彈腦 細嗽嚙津 袖刷纓冠 拂塵生波 鹽無擦卷  
漱口無過 長聲喚婢 緩步曳履 古文眞寶 唐詩品彙  
鈔寫如荏 一行百字 手毋執錢 不問米價 署毋跳襪  
飯毋徒餐 食毋先羹 歛毋流聲 下箸毋舂 毋餌生葱  
飲膠毋鬚鬚 吸煙毋輔齒 忿毋博妻 怒毋蹈器 毋拳毆兒女  
毋罵死奴僕 叱牛馬毋辱鬻主 病毋招巫 祭不齊僧  
爐不煮手 語不齒唾 毋屠牛 毋賭錢

이 글은 군수가 富人에게 양반이면 지켜야 할 행동이라하여 제시한 것인데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양반에

9) 拙稿, 「兩班傳」의 話者分析研究(于海 李炳鎬博士 華甲記念論叢 1987) pp. 471~476 참조

군수는 일정한 의도(旌善 兩班이 양반 신분을 지키게 한다)에 따라, 旌善兩班과 富人 사이의 협상에 의해 평형상태에 도달한 사건에 다시 갈등을 일으켜 사건을 최초의 상태로 돌려 놓음으로써, 사건 구조의 핵심을 결정해 버리는 존재라는 것.



게 부과된 행동 규범이며 다른 하나는 당시 양반으로서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던 습관적 행동이다. 행동 규범이라 함은 양반 자체내의 인습과 불문율에 의하여, 그리고 성장 과정속에서의 일정한 훈련에 의해 규범으로 전수되는 것이다. 「絶餓鄙事」부터 「口不說貧」까지, 「監無擦拳」부터 「緩步曳履」까지 그리고 소위 富行禁止節目인 「手毋執錢」부터 「毋賭錢」까지가 그것이다. 만약 이러한 여러 규범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양반 사회의 권위와 체면 유지를 위해 고쳐나가도록 일정한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습관적 행동이란 兩班社會에 처하여 살아 가게 되면 그 주위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자연히 습득하게 되어 있는 행동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叩齒彈腦 細嗽嚙津」이다. 이는 당시 道家의 양생법으로 兩班社會에서 널리 통용되던 하나의 섭생법이었다.<sup>10)</sup> 그외 「袖刷纓冠 拂塵生波」도 그러하고 「古文眞寶」부터 「一行百字」까지도 그런 유형에 든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그런데 행동 규범이든 습관적 행동이든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양반들이 하는 표면적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일 따름이지, 어떤 정신적 자세나 태도에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행동 규범이라 해도, 그것이 정신적 자세와 결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希古尙志」라는 정신적 차원의 것도 「絶棄鄙事」라는 외부적 행동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東來博議」라는 것도 어떤 정신적 수양을 위한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目視鼻端 會踵支尻」하고 「誦如水瓢」하는 것으로만 제시된다. 그외 富行禁止節目으로 제시된 것도 그것이 양반의 정신적 단련과 수양에 어떻게 결부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고 단순히 외부적인 행위 규제로만 나타나 있다. 이렇진대 습관적 행동은

10) 이 기원은 이것을 양반의 더러운 行爲의 하나라고 했으나, 그러한 행동을 연암 자신도 행하던 양반의 일방적인 관습이었음이 밝혀졌다.

李源周, 「兩班傳 再考」 註5) pp. 464~465

11) 이러한 행동은 행위 규범의 면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本考의 경우, 두 성격이 같이 존재하면 논의의 편의를 위해 어느 한쪽 면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두말할 것도 없다. 「古文眞寶 唐詩品彙」도 「鈔寫如花 一行百字」로서만 제시되어 있으며 그외 「叩齒彈腦 細嗽嚙津」이나 「袖刷毳冠 拂塵生波」 등은 그 당시 양반들이 하는 외부적 행동 유형의 나열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결국 양반들이 하는 표면적이고 외부적인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군수가 1次 文卷에서 드러내는 兩班觀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즉 양반이란 앞서 열거한 그런 표면적이고 외부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위 규범과 습관적 행동을 준수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럼 다음으로 2次 文卷의 내용을 살펴 보자.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維天生民 其民維四 四民之中 最貴者士 稱以兩班  
利莫大矣 不耕不商 粗涉文史 大決文科 小成進士  
文科紅牌 不過二尺 百物備具 維錢之橐 進士三十  
乃筮初仕 猶爲名蔭 善事雄南 耳白傘風 腹膳鈴諾  
室珥治妓 庭穀鳴鶴 窮士居鄉 猶能武斷 先耕隣牛  
借耘里畝 孰敢慢我 灰灌汝鼻 彙髻汰鬢 無敢怨咨」

富人の 요구대로 여기서는 兩班에게 이익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항목이 나열된다. 兩班은 「四民之中」에 「最貴者」이며 「利莫大矣」이다. 「不耕不商」부터 「庭穀鳴鶴」까지 이익됨이 많음을 하나씩 예로 들어 보인다. 그런데 그 이익됨이란 도대체 어느 정도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窮士居鄉」부터 「無敢怨咨」까지이다. 이것은 이익됨의 차원을 넘어서 있으며 인간의 기본적 인륜 도덕을 무시한 悖倫 行爲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때의 양반이란 「百物備具 維錢之橐」하는 그런 양반일 뿐 아니라, 「灰灌汝鼻 彙髻汰鬢」할 권리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반이다. 즉 양반이란 막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반이다. 즉 양반이란 막대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 이하의 패악한 행위도 할 권리를 지닌 존재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상으로 作中人物 즉 郡守가 드러내는 양반관을 살펴 보았다. 이에서 드러나는 兩班觀은 “양반이란 그 정신적 자질과는 관계없이 그 자체

내의 규범과 습관을 준수해야 하는 존재이며, 대단히 이익이 많은 존재  
이어서 인간 이하의 悖惡한 행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다.

### ③ 作品外的 敘述內容

앞서 살펴 본 대로 作品外的 敘述의 主體는 實際作家이다. 그리고 敘述方式으로는 story外的 敘述 方式을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거론되었지만 이것은 작품에 밀착된 정도에 있어, 그것에 직접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둘로 나뉘어 진다.

먼저 작품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앞서 인용된 「放孺閣外傳」의 〈自序〉를 들 수 있다. 그곳에서 「兩班傳」의 저술 동기가 밝혀지기 때문이다.

「…士適天爵 士心爲志 其志如何 弗謀勢利 達不離士 窮不失士 不飭名節 徒貨門地 醜鬻世德 商賈何異 於是述兩班…」

이것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兩班觀은 「士」라는 것에서 비롯되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士를 규명하기를 하늘이 내린 벼슬이라 하고, 선비의 마음을 志, 즉 의욕 혹은 의지라 하고, 그 의욕하는 바는 권세와 이익을 꾀하지 아니하며, 비록 현달하더라도 선비의 본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곤궁해지더라도 그 본분을 잃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士는 하늘이 내린 벼슬이라 했으니, 현재 벼슬길에 있는 관료라기 보다는 士意識을 지닌 존재로서의 선비가 된다. 그 士意識이라 하면 권세와 이익을 도모치 아니하고 어느 경우에도 그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士로서 자기 신분에 대한 투철한 자각이 없이 士로서의 자기 위치를 내팽개쳐 버린다면 그는 이미 士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不飭名節」부터 「醜鬻世德」까지는 그런 경우를 보이고 있다. 그 때는 이미 그를 士라 할 수 없고 장사치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於是에 兩班을 述한다고 했으니, 士意識이 없는 士는 장사치나 다름없기에, 마땅히 士는 士意識에 의거하여, 그의 신분을 사고 파는 행위는 절대 삼가하고, 그의 신분 유지에 철저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 「兩班傳」을 썼다는 말이다. 그런데 士가 그의 世德을 사고 팔 때는 장사치나 다름없

이 되고, 그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경우에는 진정한 士가 되겠지만, 燕岩은 商賈를 述한다고도, 士를 述한다고도 하지 않고 兩班을 述한다고 하였다. 商賈를 述한다고 하면 士로서 士의식이 없는 경우를 일컫는 말 이겠고, 士를 述한다고 하면 士意識을 지닌 선비를 그냥 士라고 부르는 것이겠지만, 兩班을 述한다고 하면 그것은 士로서 士意識을 지닌 사람을 兩班이라 부른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러면 兩班의 개념은 士로서 士意識을 지닌 사람이 된다. 이 양반의 개념은 著述 動機에서의 兩班觀을 밝혀 준다. 즉 兩班은 士意識을 지닌 사람이라 했으니 兩班觀은 “兩班이란 모름지기 士로서의 확고한 士意識을 지니고 그의 신분 유지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겠다.

다음으로 作品과 비교적 거리를 둔 상태로 진술되는 兩班觀을 살펴보자. 먼저 燕岩은 앞서의 「放穉閣外傳」〈自序〉에서 밝힌 것처럼 士意識에 철저한 선비를 양반이라 부른다고 하여, 그 이상적 상황에서는 士를 兩班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sup>12)</sup> 그러므로 그의 兩班觀은 士에 대한 관점으로도 표명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의 士에 대한 관점은 구체적 계급이나 계층보다는 하나의 정신적 자질로 士를 보는 것이다.

「夫士 下列農工 上友王公 以位則無等也 以德則雅事也 一士讀書 澤及四海 功垂萬世 易曰 見龍在田 天下文明 其謂…讀書之士乎」<sup>13)</sup>

결국 士란 農工에서 王公까지 걸치는 것이며, 계급의 차이는 없이 그 덕이 훌륭한 것이란 말이 된다. 이렇듯 士를 하나의 정신적 자질로 볼 때, 그 자질의 핵심은 어떤 것일까? 이 글에서 한 선비가 독서를 하면 그 은택이 四海를 미치고 功이 萬世에 끼친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서 좀더 자세히 고찰해 보면 그 핵심이 밝혀진다.

12)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에도 나타난다.

「今之所謂…「兩班」, 古之所謂…「大丈夫」」(「燕岩集」 권3 <孔雀館文稿>)

13) 「燕岩集」 권10 <菴齋溪菴逸>

「士之學 實兼包農工賈之理 而三者之業 必皆待士而後成 夫所謂…明農也 通商而惠工也 其所以明之通之者 非士而誰也 故臣竊以位…後世農工賈失業 卽士無實學之過也」<sup>14)</sup>

「澤及四海 功垂萬世」가 여기서는 「實兼包農工賈之理」로 나와 있다. 燕岩은 士의 학문이 진실로 農工賈의 이치를 아울러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 三者의 일은 반드시 士를 기다린 연후에야 이루어진다 하여 農工賈에 대한 士의 지도적 임무를 강조했다. 그러면 士의 정신적 자질, 그 핵심이 바로 이 지도적 임무에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農工賈가 피폐해지는 것, 그것은 農工賈 그 自體의 문제라기 보다 士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燕岩은 현실을 진단하면서 農工賈가 그 業을 잃는 것은 士때문이라고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士에게 實學이 없었기 때문이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士의 지도적 임무가 實學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實學이란 어떤 것인지 살피기 위해 다음 글을 보자. 燕岩은 實學이 없는 선비를 비판하면서 實學을 하는 예를 보인다.

「嗚乎 今以浮華不學之士 率其虛齊無知之輩 卽何異於使醉人相瞽說 是故 漢之二千石 必有孝悌力田之舉 安定學規 乃說農田水利之科 無他 貴實學也」<sup>15)</sup>

그는 實學이 없는 선비를 「浮華不學之士」라 하면서 그들에게 백성을 말짚은 「使醉人相瞽」와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力田之舉」뿐 아니라 「說農田水利之科」와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實學을 찾았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實學的 態度는 다음 글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古有戒僕益馬豆 晒穀者揮雀 而遂被瑣屑之謗 終身枳清選者 夫益馬揮雀 何與於賢不肖 而不幾傷於太博乎」<sup>16)</sup>

14) 「燕岩集」 권16 <課農小抄>

15) ibid

16) 「燕岩集」 권3 <孔雀館文稿>

결국 그가 말하는 실학의 범위 속에는 말에게 콩을 먹이는 것, 곡식을 말리고 참새를 쫓아내는 것과 같은 것들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燕岩이 말하는 바, 士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는 士가 「浮華不學」의 태도를 버리고 현실 생활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 즉 實學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해나가는 것이 그 임무라고 보았던 것이다. 燕岩이 생각하는 바, 이러한 士의 임무에서 우리는 作品外的으로 실제 작가가 내세우고 있는 양반관을 추출해 볼 수가 있다. 그는 “양반이란 한 사회에서 지도적 임무를 띠고 있는 존재로서, 實學으로써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존재이어야 한다”라는 양반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作品外的 敘述內容으로서, 실제 작가인 燕岩이 서술하고 있는 양반관을 살펴 보았다. 그에 의하면 “양반이란 첫째 그 士意識을 지니고 그 신분 유지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사회적 정신적 지도자로서, 실학에 의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다.

#### 나) 「兩班傳」의 諷刺의 敘述構造

지금까지 「兩班傳」을 중심으로 하여, 양반관에 결부된 서술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兩班觀들은 燕岩의 독특한 방식에 의하여 「兩班傳」 특유의 諷刺의 敘述構造를 이룩한다. 그럼 지금부터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해 보겠다. 먼저 제한된 범위내에서 諷刺의 개념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① 諷刺의 개념

문학에 있어서 諷刺란 작가가 작품에서 구사하는 하나의 문학적 기법(literary art) 혹은 문학적 방식(literary manner)으로, 어떤 제재(subject)를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거기에 대한 재미, 멸시, 분노, 냉소의 태도를 환기시킴으로써 그것을 격하시키는 것이라 규정될 수 있다. 이 제재는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인데, 한 개인일 수도 있

고, 인물 유형이거나 어떤 계층이거나 제도나 국가, 혹은 인류 전체일 수도 있다.<sup>17)</sup>

요컨대 그 방식의 옷점은 어떤 제재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이 점에서 회극과 겹친다. 그러나 회극이 단순히 우스꽝스러움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諷刺는 다른 목적을 하나 더 가진다.<sup>18)</sup> 그 목적은 인간의 惡德이나 愚行을 矯正한다는 것이다. 결국 諷刺가 다루는 대상은 矯正對象이 되는 어떤 결점을 가진 주제가 될 것이며, 그 결점은 사람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矯正할 수 있는 결점이다.<sup>19)</sup>

어떤 결점을 교정하고자 하면 일차적으로 그것의 모순점을 폭로하여 깎아내리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諷刺는 그런것도 수행한다. 그런 면에서 그것은 야유나 아이러니와 비교·대조된다. 諷刺가 대상을 깎아내리고 비난한다는 점에서는 야유와 같다. 그러나 야유는 矯正하려는 의도가 없는 반면 諷刺는 그 의도를 가진다.<sup>20)</sup> 아이러니는 말과 뜻이 반대인 것을 뜻한다.<sup>21)</sup> 諷刺의 경우 말은 깎아내리는 것이나 뜻은 교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말과 뜻이 반대일 뿐 교정의 뜻은 없다. 이렇게 보면 아이러니와 야유 그 자체는 풍자가 될 수 없고, 그것이 교정의 목적으로 향해 있을 때만 풍자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요컨대 풍자의 최종 목적은 교정이고, 그것의 수단으로 아이러니, 야유등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2)</sup>

諷刺의 목적이 矯正이라 할 때, 작가가 諷刺를 사용하게 되는 배경은

17) M.H.Abrams ed.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4ed. Holt Rinehart & Winston 1981. pp. 167~168 참조

18) 풍자와 회극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金重河, 諷刺文學序說(國語國文學 12집 釜山大 국어국문학회 1975) p. 42

19) 註17) 참조

20) C.carter colwell. 「A students Guide to Literature」 Washington Square Press New york. U.S.A 1973 p. 50

21) ibid

아이러니의 유형은 크게 언어적 아이러니와 상황적 아이러니, 둘로 나뉘는데 이 경우는 언어적 아이러니에 해당된다.

李昇薰 「詩論」 서울 高麗苑 1980. p. 227

22) 註20) pp. 49~50 참조

명료해진다. 작가가 諷刺를 사용할 때란 그가 부딪치는 현실이 合理的이고 正當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모순에 가득 차 있을 때이다. 그가 만약 투철한 歷史意識과 비판적 능력에 의해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는 이 현실의 모순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것에 그의 批判意志와 아울러 矯正意志가 결합되면 그 나름의 諷刺手法이 나타난다. 즉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sup>23)</sup> 때문에 풍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諷刺文學이 현실의 모순에 부딪쳐 가는 것이라 할 때, 그것은 일견 抵抗文學과 같게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합치되는 점과 차이나는 점을 가진다. 투철한 現實認識에 대한 現實批判이란 점에서 諷刺는 抵抗文學과 같지만, 抵抗文學이 몸을 사리는 법이 없이 현실 그대로를 폭로하고 거부하는 극렬한 몸짓으로 현실에 직접 부딪치는 반면 諷刺는 가능한 모든 것을 숨기고 간접적 혹은 內攻的인 수법을 이용한다. 사실 諷刺作品은 그 나름대로 내적인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sup>24)</sup> 그러므로 諷刺文學이 가지는 그 공격성도 작품속에 융해되고 은폐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풍자에게는 간접성이란 특성이 부여되며, 풍자가는 그가 하는 모든것을 숨기려 하여<sup>25)</sup> 자신을 위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 둔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本考에서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sup>26)</sup> 諷刺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체적으로 보아, 그것은 문학상의 한 기법으로서, 諷刺作家 自身이 투철한 現實認識에 의해 諷刺의 精神을 발휘하여 어떤 제재의 결점을 드러내어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깎아내려서 그것의 폭로와 동시에 비판을 하여, 보다 나은 상태로 교정시키려 하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풍자가 자신에게는 어떤 보호막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이라 말

23) Arthur Pollard, 「Satire」 (The critical idiom 7. Methuen & Co. Ltd. London 1970) p. 3

24) 註18) 참조

25) 註23) 참조

26) 本考의 풍자론은 풍자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아니다. 단지 앞으로 논의될 「양반전」의 서술 구조의 특질을 밝히기 위해, 풍자와 회극, 아이러니, 야유, 저항 문학들과의 차이에 의해 드러나는 풍자의 일면만 거론해 본 것일 뿐이다.



할 수 있겠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에 따라 「兩班傳」의 諷刺的 敘述構造, 그 방식상의 특질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 ② 「兩班傳」에서의 諷刺的 敘述構造의 특징

「兩班傳」의 諷刺的 敘述構造는 앞서 살펴본 네 유형의 兩班觀에 그 특성의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서 앞서 거론된 4유형의 양반관을 검토해 보자. 兩班觀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음 4가지, 즉 ① 作品內的이고 敘述主體가 話者이면서 story外的인 것, ② 作品內的이고 敘述主體가 話者이면서 story內的인 것, ③ 作品內的이고 敘述主體가 作中人物이어서 story內的인 것, ④ 作品外的이고 敘述主體가 實際作家이어서 story外的인 것이다.<sup>27)</sup> ①~④ 까지 양반관과 구체적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①은 “양반이란 士族으로서 그 자신의 士意識을 지닌 존재다” ②는 “양반이란 그 신분 유지에 철저해야 한다”<sup>28)</sup> ③은 “양반이란 그 자체의 규범과 인습을 준수해야 하는 존재이며, 아주 이권이 많아 폐악한 행위까지 할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④는 “양반이란 첫째, 士意識에 근거하여 身分維持에 철저해야 하며, 둘째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實學에 의해 現實問題를 타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作品內的인 것과 作品外的인 것을 생각해 볼 때, 作品外的인 것은 作家의 虛構意志가 개입되는 반면 作品外的인 것은 그것이 없이 作家自身の 세계관이 직접으로 개입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作品內的인 것은 作家의 의도에 따라 作品이란 經過過程<sup>29)</sup>을 통하여 변형되어 敘述되는 表面的 內容構造를 이루며, 作品外的인 것은 作品과 독립된 상태에서 作家의 實際意圖를 구성한다. 그런데 만약 作家가 실제로 作品 바깥에서 하는 말과 작품상에서 하는 말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작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면, 이것은 말과 뜻이 다른 경

27) 이 중 ④는 작품에 밀착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진다. 지금 정리 단계에서는 이것을 빼고 논의하겠지만, 작품의 풍자적 구조 해명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後述하겠다. 本考중 ‘兩班을 바라보는 4개의 시각’ 참조

28) 註9)의 拙稿 참조

29) 經過過程, 특히 敘事的 經過過程은 Wolfgang Kayser의 용어에 의거, Wolfgang Kayser, Das sprachliche Kunstwerk  
金潤涉譯, 「言語藝術作品論」 서울 大邦出版社 1982 pp. 278~283 참조

우가 되므로 아이러니가 될 것이며, 그것에 풍자의 속성에 해당되는 비판 의지 및 비난의 어조등이 개재되어 있다면, 諷刺의 性格과 결부될 단서가 될 것이다.<sup>30)</sup> 그런 관점에서 「兩班傳」의 풍자적 서술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연암은 작품 바깥에서 이야기하기를 「明農也 通商而惠工也 其所以明之通之者 非士而誰也」라 하여, 士의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군수가 말하는 양반은 「不耕不商」하면서도 「先耕隣牛」하고 「借耘里畝」하는 그런 양반으로, 지도자적 역할은 커녕, 민중들에게 해악이 되는 존재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연암은 「夫益馬揮雀 何與於賢不肖 而不幾傷於太博乎」라고 하여 양반이 현실에 직접 부딪혀 그 당면한 문제, 현실적 문제를 타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군수는 양반이 「絕棄鄙事 希古尚志」해야 한다고 하여, 현실의 잡다한 문제는 일체 내던져 버리고 그 현실과 무관한 옛 것만 숭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암은 「嗚乎 今以浮華不學之士 率其齷齪無知之輩 卽何異於使醉人相瞽瞍哉」라고 하여 허황되고 허식에 잠긴 선비들에 대해 비난을 하고 있는데, 군수는 「目視鼻端 會踵支尻」하거나 「袖刷纓冠 拂塵生波」하는 그런 양반을 내세우고 있어 허례허식에 양반이 폭 잠겨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암은 양반이라는 것이 계급이나 지위와는 관계없는 하나의 정신적 자질이라 하여 「夫士 下列農工 上友王公 以位則無等也 以德則雅事也」라 하였는데 군수는 「大決文科 小成進士」하고 「進士三十 乃筮初仕 猶爲名蔭」인 그런 양반, 즉 벼슬길이나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實際作家가 제시하는 양반이란 지도자적 의식이라는 하나의 정신적 자질을 갖춘 존재로서 허례 허식을 버리고 실질적 生活態度를 갖춘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인 반면, 作品上으로 제시되는 양반이란 민중을 괴롭히고 자기들의 인습이나 고수하면서 허례 허식에 가득차 있는, 그러면서도 벼슬길이나 꿈꾸는 그런 존재인 것이다. 양반

30) 물론 아이러니의 경우만 풍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아이러니가 없더라도 풍자가 될 수는 있다. 지금의 논의는 「양반전」과의 관련하에 특수한 예로서 제시된 것이다.

의 고도의 정신적 자질을 要諦로 한 作家의 實際的 兩班觀과, 兩班의 훼손된 생활상을 보인다는 作品內的 敘述로서의 양반관이 가지는 차이는 前者에서 보이는 ‘뜻’과 後者에서 보이는 ‘말’이 서로 어긋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된다. 이 아이러니에 내재되어 있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사실상 군수가 1次 立卷過程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양반들이 하던 일반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소위 當行節目으로 제시된 「絶棄鄙事 希古尙志」나 「五更常起 點硫燃脂 目視鼻端 會踵支尻」는 士族으로서 宜當 몸에 배어야 하는 것이며, 兩班階級에 屬한 선비들로서는 하나의 구비 조건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이었다.<sup>31)</sup> 뿐 아니라 當行禁止節目으로 제시되는 「手毋執錢 不問米價」나 「歎毋流聲」 「下箸毋舂毋餌生葱」도 철저히 지켜지고 있던 것이며 「毋屠牛」같은 것은 양반 계층으로서의 계층 유지를 위한 최저 조건이었다.<sup>32)</sup> 그러므로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연암 자신의 양반관과 결부되던 문제는 달라진다. 연암은 선비란 農·工·賈의 이치를 아울러 포함하는 지도자로서의 정신적 자질이라고 했지, 이러한 외면적 규범에 의해 규정되는 表面的 存在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夫益馬揮雀 何與於賢不肖 而不幾傷於太薄乎」라 하여, 양반이 소위 「鄙事」를 내던지고 절복에 대해 그 폐해를 개탄하였으며, 그런 부류를 「浮華不學之士」라고 비난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作品上으로 드러나는 양반이란 지도자적 자질도 없고, 實學도 전혀 없는 그저 허세뿐인 존재이다. 연암 자신의 양반관에 따른다면 그것은 가차없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 뿐이다.<sup>33)</sup>

31) 成耆說, 「兩班傳」中 當行禁止節目에 대하여(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第四輯 仁荷大學校 1978.2) pp. 115~116

32) ibid p. 124

33) 李源周, 朴箕錫등은 연암이 실제로 비판한 것은 이 1次 文卷이 아니고, 2次 文卷의 내용이라고 했다. 1次 文卷은 당시 양반들에 의해 준수되던 일반적 행동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시 양반들이 하던 일반적인 행동규범이라해서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연암이 생각하고 있는 바, 士意識이 전

즉 여기에서의 양반은 연암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면은 사라진 채, 그 비판적인 규탄의 대상이 되는 면만 제시되는 양반이다.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는 양반의 걸치레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예를들면 「目視鼻端 會踵支尻」가 그러하고 「古文眞寶 唐詩品彙 鈔寫如荏 一行百字」도 그러하며 「長聲喚婢 緩步曳履」나 「爐不煮手」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군수가 양반의 행위라고 드러내는 것에는 兩班社會에서 지켜지는 불합리한 생활상이나, 다른 사람들 몰래 은밀히 하고 있는 것, 혹은 비도덕적인 생활상이 여지없이 폭로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不合理한 생활상으로는 「古文眞寶 唐詩品彙」를 「鈔寫如荏 一行百字」한다는 것이 있다. 李家源님에 의하면 이는 그 당시 졸렬한 文教政策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sup>34)</sup> 표면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은밀히 하고 있던 것이란 예를 들어 當行禁止節目에 「病母招巫 祭不齋僧」 같은 것으로, 이는 儒敎的 世界觀에 의하여 儒敎社會에서 금기 사항으로 여긴 것이지만 士族에 의해 宮內에서도 행해지던 것이며 「毋賭錢」 같은 것은 당시 양반의 자제들이 노름꾼으로 많이 행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35)</sup> 그리고 비도덕적 생활상은 주로 2次文卷에 나타나는 것으로 2次文卷은 양반의 이익됨을 보인다는 미명아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非行이 나열되어 결국 「富人으로 하여금 「已之已之 孟浪哉 將使我爲盜耶」라는 말까지 나오게 하여, 양반을 실로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비치게 한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버젓이 양반의 행세로서 나타나 있으니, 그 당시 양반들이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sup>36)</sup> 연암 자신의 「以德則雅事也」의 관점으로 본다면 단순히

---

허 없이 그런 행동 규범만 지킬 경우, 그것은 걸치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앞서 본대로 그것을 연암이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양반관과 결부시켜 본다면, 그것마저도 비판의 화살을 벗어나지 못한다.

李源周, 「兩班傳 再考」 註5) p. 462 p. 470 참조

朴箕錫, 「朴趾源 文學研究」 서울 三知院 1984 p. 128 참조

34) 註4) pp. 335~342 참조

35) ibid pp. 355~356 참조

36) 朴箕錫은 군수가 양반의 신분 유지에 골몰하다보니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된 것이라 보고 있다. 朴箕錫, 앞글 p. 126 참조

우스꽝스러움을 일으키는 것임을 넘어서서, 전적으로 비판과 비난의 도마위에 올려진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작가는 자신의 실제 입장으로는 비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양반관을 작품에서 드러내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作品上으로는 비판의 대상으로만 양반이 드러난다면 연암이 작품 바깥에서 진술하고 있는 진정한 양반관과는 어긋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하여 작가의 실제의 뜻과 作品上으로 드러나는 말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아이러니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러니가 작가의 비판 의지와 결합된다면 그것은 諷刺과 결부된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을 진술하되, 그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그것은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비판하게 하는 것, 이에서 諷刺의 한 특질이 노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대로 풍자는 그 방식의 요점을 우스꽝스러움을 일으키는 데 두고 있으며, 또한 풍자가란 어떤 일 그 자체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문제 삼고 있는데<sup>37)</sup> 연암은 양반 그 자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반을 허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 당시의 세태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그를 비판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렇게 아이러니와 비판이 결합되면 일단 諷刺로서의 단서는 성립되겠지만, 그것으로서 諷刺文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諷刺는 단순히 대상을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것만은 아니다. 앞서 말한대로 그것이 야유는 될지언정 諷刺는 될 수 없다. 諷刺는 그러한 것을 통해 惡行이나 모순을 교정하려는 의도를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 「양반전」에서는 그 의도가 어떻게 진술되는 것일까? 그것은 話者의 story外的 敘述에서 나타난다.

이 話者의 story外的 敘述은 그 성격이 미묘한데 우선 그것은 作品內에 있으면서도 story外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作品外的으로 존재하는 實際作家의 견해를 반영하는 面이 상당히 짙다. 일단 그것이 作品內에서 話者에 의해 敘述되는 것이라면 그 견해는 實際作家의 견해가 아니

37) 註23) p. 21 참조

라, 含蓄的 作家<sup>38)</sup>의 견해라고 해야겠지만 「양반전」의 경우 「兩班 士族之 尊稱也」에서 나타나는 견해는 그 士意識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연암이 가지는 견해와 동일하다.<sup>39)</sup> 이렇게 되면 이것은 實際作家的 견해를 반영하는 面이 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와 또 다른 面을 보면, 話者の story外的 敘述은 story外的이긴해도 作品外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作品內에서 事件構造 및 스토리를 지배하고, 그 의미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조선 후기 漢文短篇에서 外史氏니 梅花外史니 副黑子니 하여 제시되는 편집자적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다.<sup>40)</sup> 이것들은 作家的 號나 假名을 써서 內容에 대한 個人的 所見을 밝히는 데, 분명 作家 自身の 發言인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고 作品 바깥에서 作品에 대한 後評이나 감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作品內部에 존재하여 作品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작품 내용의 총체적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을 필연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話者の story外的 敘述인 「兩班 士族之尊稱也」가 사실상 作品의 전체 내용을 지배하고 통괄하는 의미를 제시한다 하겠는데, 과연 story內的으로 作中人物이 敘述한 兩班은 하나의 존칭 개념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대로 作家는 兩班의 모습을 批判對象으로만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비판당하고 깎아 내려지는 존재로 드러나지, 조금도 존칭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안된다. 그 결과 當人도 「兩班只此而已也 吾聞兩班如神仙 審如是 太乾役」이라 하게 되고 막판에는

38) 含蓄的 作家는 實際作家와는 구별되는 존재로서, 작품속에서 독자가 마주치는 작가, '지금' '현재' 창작에 임하고 있는 작가, 작품속에 존재하고 있는 작가이다. 이 含蓄的 作家는 實際作家 real author의 작품 내적 변형인 것이며 作品속에서 話者를 설정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話者와는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 Wayne.C. Boothe, "Distance & Point-of-view ; An Essay in classification". Essays in Criticism XI(1961); 「The They of the Novel,」 ed. philip stevick(New york ; The Free Press 1967)p. 92

· Bernard.J. Paris, "The uses of Psychology ; character & implied author" 「A Psychological Approach to Fic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4) pp. 1~27

39) 話者の story外的 敘述의 내용은 註9)의 拙稿 참조

40) 李佑成, 林炎澤譯編, 「李朝漢文短篇集」 서울 一潮閣 1981, 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

「已之已之 孟浪哉 將使我爲盜耶」라 하게 된다. 그런데도 그 모든 내용을 통괄하는 의미로는 존칭으로서의 양반을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그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공격은 富人의 입으로 한다. 그것은 도둑의 짓거리에서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말하는 대상이 '그릇되었다고 하면서 양반의 현실에 대한 공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그러면 존칭 개념으로서의 양반은 말하는 대상이 그릇되었다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 지향해야 할 理想的 狀態를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양반전」에서 話者가 story外的 敘述을 하는 부분이다. 이 story外的 敘述은 현실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양반의 현실 상황에 그 理想的 狀態를 제시함으로써 그런 상태로의 교정의지를 드러낸다. 이렇게 볼 때 作家는 兩班이라는 존칭 개념을 story外的이면서도 作品內的인 것으로 설정하여 story內에서 서술되는 모든 비판의 내용에 어떤 교정 의지를 드러낸 것이며, 그런 점에서 「양반전」은 또한 諷刺의 특질중 한 기본적 맥락을 이루는 교정의 의지가 드러난다 하겠다.

그런데 비판의 맥락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고찰이 가능하다. 燕岩이 兩班의 실태를 비판하고 깎아내린다고 했을 때, 그는 당시의 不合理한 現實에 대한 어떤 저항 정신으로 하나의 抵抗文學을 쓴 것이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燕岩은 그런 抵抗意識이 있었기에 이런 作品을 썼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런 意識을 결코 直說的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그 自身을 위한 保護措處는 충분히 해 둔 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수행한다. 그런 면에서 이 作品은 現實에 대한 비판과 깎아내림을 하면서도 그 自身은 충분한 보호막 속에 가려버린다는 諷刺의 속성을 달성하여, 그 諷刺의 手法의 완결을 보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燕岩이 作品外的으로 敘述하는 兩班觀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作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兩班은 그 士意識에 의거하여 그 兩班觀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作品과 직접적으로 관련 맺지 않는 것으로, 양반이란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實學으로써 農工賈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중 첫째의 것은 「放謫閣外傳」의 〈自序〉중에 나타나는 것으로 燕岩自身이 「兩班傳」을 저술한 직접적인 目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兩班傳」에서 兩班觀을 고수해야함을 보이겠다는 意圖를 표명한다 하겠는데 그 意圖는 作品上으로 郡守에 의해 실현된다. 郡守의 意圖는 兩班이 그 신분을 버림이 온당하지 않다 하여 어쨌든 그것을 막아 보자는 것이었고 결국 그는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郡守는 「양반전」의 著述意圖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으며, 적어도 작품 바깥에서 밝히는 著述意圖의 측면이라면 아무런 瑕疵가 없다. 이 작품은 당시 兩班社會에서 요구할 법한 身分秩序의 존속이라는 目的을 위해 지어진 것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군수가 하는 發言의 內容에 있다. 앞서 살펴본대로 作家의 實際 兩班觀과 견주어 본다면 그것은 당시 양반들의 훼손된 삶을 드러내어 비판하고 깎아내린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양반들이 당연히 하던 일들도 비난의 대상으로 보일뿐 아니라 그들이 은밀히 혹은 공공연히 하던 모든 불합리한 일이나 非人間的인 悖倫行爲까지도 여지없이 폭로된다.

이렇게 兩班社會의 要求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내막을 파헤쳐 비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郡守는 이 작품에서 두 개의 칼날을 지닌 존재가 된다. 하나의 칼날은 燕岩 自身の 著述意圖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은 당시 양반들의 自己身分 維持와 持續이라는 기존의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되어, 作家自身은 兩班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하나의 칼날은 兩班의 실태를 비판하고 깎아내린다는 作家意圖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양반들이 당시 습관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허례허식이나 불합리한 모든 행동, 심지어는 은밀히 저지르던 행동이나 비도덕적 悖倫行爲까지도 백일하에 폭로되어 난도질 당하게 된다. 그것이 다름아닌 郡守 自身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sup>41)</sup> 이

41) 燕岩이 그의 비판의지를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진술하는 방법을 취함은 그의 「열하일기」全篇에도 잘 나타나 있음이 밝혀졌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



두 개의 칼날중 前者의 것은 燕岩으로 하여금 당시 兩班社會의 공격으로부터 방패막이가 될 수 있게 한다.<sup>42)</sup> 그러나 이 前者로부터 비롯된 두번째의 칼날 그것은 燕岩 自身の 實際意圖, 즉 비판하고 규탄하는 의도를 수행하게 된다.<sup>43)</sup> 이리하여 燕岩 自身이 의도했던 諷刺的 敘述構造는 완결을 보게 된다. 즉 그는 그 자신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둔 채 矯正意志를 수반한 비판 표명을 완수했던 것이다.

### III. 結 論

지금까지 「兩班傳」의 諷刺의 性格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諷刺라는 것이 實際作家와 話者의 섬세한 相互關係 下에 드러나는 것이라 볼 때, 그런면에서의 논의는 미흡했다고 하겠다. 本考는 주로 實際作家—含蓄의作家—話者—作中人物의 相互關係性을 밝힘으로써 「兩班傳」의 諷刺的 敘述構造를 밝혀 보려 한 것이다. 本考에서 주목한 것은 주로 兩班을 바라보는 視角에 따른 兩班觀의 定立樣相이었는데 그것은 우선 兩班을 바라보는 다양한 視角과 그 內容을 검토해 봄으로써 드러날 수 있었다.

「兩班傳」에서 兩班을 바라보는 視角은 4가지가 있었는데, ① 作品內的이고 敘述主體가 話者이며 story外的인 것, ② 作品內的이고 敘述主體가 話者이면서 story內的인 것, ③ 作品內的이고 敘述主體가 作中人物이어서 story內的인 것, ④ 作品外的이고 敘述主體가 實際作家이어서

李鍾周, 「熱河日記」의 인식 논리와 서술방식(한국고전문학연구회篇「近代文學의 形成過程」서울 문학과 지성사) pp. 289~313 참조

42) 이 말은 약간의 유보 조항을 필요로 한다. 즉 그것이 완전한 방패막이 되기에는 작품의 Tone이나 분위기, 소재 선택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本考는 아이러니와 결부된 풍자적 서술 구조를 밝히는 입장이므로, 그 외의 문제는 차후로 둘리겠다.

43) 黃測江은 군수가 양반의 이중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화해자이듯 행동하면서 離間者이고 協助者인듯 하면서 방해자였다는 이중성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本考에서의 이중성은 그런것보다 차라리 趙東—이 論한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의 이중성에 가깝다.

· 黃測江, 「朝鮮王朝小說研究」 서울 檀大出版部 1983 p. 311

· 趙東一, 「춘향전」주제의 새로운 고찰(「우리문학과의 만남」서울 흥성사 1978 pp. 200~203)

story外的인 것이었다. 그중 ④는 성격상 作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둘이 있었다. 그 內容을 검토해보면 ①은 “兩班이란 士族으로서 그 自身の 士意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고, ②는 “兩班은 그 身分維持에 철저해야 한다”는 것이고 ③은 “兩班은 그 自體의 규범과 인습을 준수해야 하는 존재이며 아주 利權이 많아 悖惡한 行爲까지 할 권리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이고, ④는 작품에 밀착된 것으로는 “兩班이란 그 士意識에 근거해서 그 身分維持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과, 작품과 덜 밀착된 것으로 “兩班은 社會的 指導者로서, 實學에 의해 現實問題를 타개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성격상 作品外的인 것이 作家의 實際意圖를 드러내는 반면, 作品內的인 것은 作品의 敘事的 經過過程이라는 표층적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作家의 實際意圖 즉 ‘뜻’에 해당되는 作品外的 敘述의 내용이 作家가 作品에서 하는 ‘말’에 해당되는 story內的 敘述의 內容이 서로 어긋나는 데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이 아이러니는 作家 自身の 實際立張으로 볼 때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兩班의 면모를 作品上에 등장시킴으로써 나타난 것인데, 이렇게 아이러니가 作家의 批判意志와 결합되면서 諷刺文學으로의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런데 諷刺의 속성중의 하나인 矯正도 作品에서 검출되는 바, 그에 해당되는 것이 作品內的 敘述 中 話者의 story外的 敘述이었다. 그에 비하면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兩班의 모습에 한 理想的 상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作家의 敘述方式은 作品을 얼핏 저항문학적인 모습으로 이끌고 가기 쉬운데, 燕岩은 그 自身の 독특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직접적 저항이 아닌, 우회적인 공격 방식, 즉 풍자의 수법을 완성시킨다. 그것은 作品外的 敘述에 있어 作品의 創作動機를 밝히는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에 의하면 「兩班傳」은 양반의 身分維持와 持續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은 것이란 말이되고, 作品上으로는 作中人物인 郡守가 그 일을 완벽히 수행해 냄으로써, 「兩班傳」은 兩班의 身分維持를 바라는 당시 兩班들의 욕망을 대변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수행하는 郡守가 하는 말의 內容이 사실상 燕岩의

批判意志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兩班의 非理와 矛盾을 폭로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燕岩은 作品上으로는 作中人物을 통해 自身の 批判意志를 완수하면서도 그 創作動機를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작품 내용으로 실현시킴으로써 그 自身은 어떤 보호막 안으로 숨어버리는 기법을 구사한 것이 된다.

이렇게 燕岩이 作品 바깥에서 敘述하는 것과 作品內에서 含蓄的 作家로서 敘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兩班觀에 토대를 둔 敘述이 矯正意志를 수반한 批判을 수행하면서도 自身을 위한 保護는 이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兩班傳」의 諷刺的 敘述構造의 특징이다.

하나의 諷刺作品은 作家의 諷刺的 精神에 의하여, 즉 그 날카로운 현실 의식과 역사 의식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강하게 느껴, 현실에 대한 비판의지와 교정의지를 발휘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했다. 사실 이 문제는 燕岩 自身の 世界觀이 총체적으로 규명되고 그의 개인적 의식이 보다 심화된 차원에서 살피져야만 해결될 문제이므로 燕岩이라는 作家를 다루는 차후의 논의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兩班傳」의 諷刺的 敘述構造를 밝히는 논의는 이것으로 그치려 한다.

## 〈참고문헌〉

1. 燕岩集
2.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서울 乙酉文化社 1980.
3. 朴箕錫, 「朴趾源文學研究」 서울 三知院 1984.
4. 黃測江, 「朝鮮王朝小說研究」 서울 檀大出版部 1983.
5. 金泳謀, 「朝鮮支配層研究」 서울 一潮閣 1982.
6. 車溶柱編, 「燕岩研究」 대구 계명대 出版部 1984.
7. 成耆說, 「兩班傳」中 當行禁止節目에 대하여 (人文科學研究所 論文集 第四輯 仁荷大 1978. 2)
8. 李鐘周, 「熱河日記」의 인식 논리와 서술 방식 (한국 고전 문학 연구 회篇 「近代文學의 形成過程」 서울 문학과 지성社).
9. 李佑成外, 「李朝漢文短篇集」 서울 一潮閣 1981.

다고 하나 그렇다고 방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文學作品이 사회상의 반영이고 시대정신의 소산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고전작품 연구의 경우에는 당대의 文學觀이 批評의 準據로 적용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古典詩學에서의 諷刺詩論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漢詩를 포함한 우리의 詩歌文學에는 풍자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諷刺詩나 諷刺小說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자 자체에 대한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그것도 朝鮮後期詩話에만 집중된 감이 있고, 자세한 언급도 실려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본고에서는 우선 諷刺의 語義와 諷刺論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詩經國風觀과 美刺風喻說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그 修辭的 特質이라고 할 수 있는 比·興과 관련지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古典詩話에서 諷刺詩로 언급되고 있는 詩의 性格 究明을 통해 작품을 選한 문인의 諷刺觀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풍자론과 관련된 언급은 시경의 風과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白居易(唐)나 程廷祚(淸)의 경우에는 비교적 精緻한 이론을 남기고 있으나 그 근처에도 역시 詩經國風觀이 깔려 있다. 따라서 시경국풍관이 본고의 핵심이 될 것이나, 그 이외에 풍자와 관련된 언급을 뭉뚱그려 살펴보고자 한다.

## II. 諷刺의 語義

동양에서의 諷刺에 대한 논의는 孔子의 諷諫論에서 비롯된다.

孔子가 말하길, “忠臣이 임금을 諫하는 때에는 다섯가지의 뜻이 있으니 첫째는 正諫하는 것이요, 둘째는 愆諫하는 것(꾸밈이 없는 것)이며, 셋째는 降諫, 넷째는 直諫이며, 다섯째는 諷諫이니 오직 임금을 해아려 行하는 것이지만 나는 諷諫을 따르겠다.”고 하였다.<sup>3)</sup>

(3) 「孔子家語」卷3 辯政 第14, 孔子曰 忠臣之諫君 有五義焉 一曰諱諫 二曰愆諫 三曰降諫 四曰直諫 五曰諷諫 唯度主而行之 吾從諷諫乎.